

2024년 1월 11일

KT&G 지배구조위원회, 차기 사장 후보군 구성 의결

KT&G 지배구조위원회(이하 지구위)는 11일 지구위를 열고 사외 후보 14명, 사내 후보 10명, 총 24명을 차기 사장 후보군(롱리스트)으로 확정했습니다. 현 백복인 사장은 지난 9일 연임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차기 사장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외 후보군은 공개모집 응모자 8명과 서치펌 추천후보 6명의 사외 지원자 14명 전원이 포함되었으며, 사내 후보군은 고위경영자 육성 프로그램 대상자 중 10명이 포함되어 총 24명의 사장 후보군(롱리스트) 구성이 확정됐습니다.

금번 KT&G의 사장 선임 절차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약 3개월에 걸쳐 ‘지배구조위원회-사장후보추천위원회-주주총회 승인’의 3단계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지구위는 사장 후보군(롱리스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5명으로 구성된 인선자문단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에 추천할 사장 후보 심사대상자(1차 숏리스트)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사추위는 사장 후보 심사대상자(1차 숏리스트)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심사를 거쳐 2월 중순 사장 후보 심사대상자(2차 숏리스트)를 압축한 후 그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며, 2월 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3월 말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 전체의 총의를 반영해 차기 사장 선임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 회사 정관에 따라 연임 의사가 없는 현직 사장은 사추위에 참여할 수 있으나, 백복인 사장은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사추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IR실

따라서, 금번 사추위는 전원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KT&G 이사회는 현직 사장의 연임의사 여부와 상관없이 사추위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는 정관개정 안건을 금번 주주총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백종수 지배구조위원장은 “KT&G를 한 차원 더 높은 글로벌 리딩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새로운 리더십 필요성을 강조하며 용퇴한 백 사장의 결단을 존중한다”라며, “모든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미래가치를 극대화한다는 원칙하에 사장 후보 선정에 대한 심사를 충실히 진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에도 더욱 강화된 공정성, 객관성을 바탕으로 차기 사장 선임의 전 과정을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